

# 物流의 현상과 장래

## 1. 물류에 있어서의 키워드

물류라 함은 유통의 물리적 측면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사회경제적 視点도 있고, 기업경영적 시점도 있다. 그러므로 「물류의 현상」을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으며, 「그의 장래」를 말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써 물류의 현재를 규제하여 장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는 키워드들 찾아내어 그것에 의하여 커다란 물류를 보고자 한다.

그 키워드의 하나가 「정보화」이다. 원래, 기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통합개념으로서의 물류가 시스템으로서 우리들 앞에 나타나 발전해 나간 것으로 정보화—특히 컴퓨터의 도입의 힘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에도 수송시스템, 유통센터, 물류관리 등에 있어서 정보시스템의 힘은 크다. 정보화는 앞으로의 물류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소라고도 말하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물류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두번째의 키워드는 「전략지향」이라는 것이다. 원래, 물류라는 것은 처리능력과 비용으로 보아왔다는 성격이 있다. 사회

경제적으로는 기반구조정비, 수송체계의 책정, 기업경영적으로는 비용삭감, 제 3의 利潤源 등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근년의 물류에 대한 대처는 그러한 것 이외에 더 고차원의 목적을 갖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사회복지라든가 지역개발, 기업경제적으로는 마케팅·시스템 속에서의 물류라고 하는 「양과 비용」이라는 視点이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물류를 잘 알 수 있고, 장래의 방향도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세번째의 키워드 그것은 「소량화와 통합화」이다. 이는 현재 물류의 성격을 잘 말하는 것이어서 장래도 이것에 의하여 물류는 변화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세가지 키워드를 거론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세번째의 「소량화와 통합화」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 2. 현재의 물류

최근 10년 물류의 세계에서는 「輕薄短小」라든가, 「다품종소량」등이 문제시 되어왔다. 이를 거시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경제의 성숙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로서

- 1. 물류에 있어서의 키워드
- 2. 현재의 물류

제3차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제조업에 있어서도 중공업으로부터 기술·지식집약형의 공업으로 중심이 옮겨짐에 따라, 거기에서 생기는 유동물질은 작아져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국민 소비의 양적팽창은 질적변화를 촉진하여 생활방식의 다양화, 지향의 개성화를 가져와 여기에서 섬세하고 다양한 유통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미시적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의 구색맞추기와 판매방식은 거시적인 견지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복잡해졌고, 따라서 물류도 다양해져가고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것이 몇개씩 생기고 있다. 첫째로는, 소량 혼재 수송의 발전이다. 그 중에서도 택배편은 우편소포를 침식하는 것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런, 택배편은 인간 10억개 이상의 큰 시장을 조성했지만, 우편소포도 결코 뒤지고 있지는 않으며, 연간 2억개 이상을 확보하여 소량 혼재 수송의 전체적 확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택배편 이외의 트럭수송인 급편, 노선편의 새로운 성장도 상업화물시장이 확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택배편이나 우편소포의 발전은 통신판매라든가 산지직송, 택배사업 등등의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발생케 하고 있다.

「자스트·인·타임·시스템(JITS)」도 현재의 물류를 형성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었다. JITS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을 조달하려고 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단지 그러한 요구가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공장에 있어서는 정보시스템을 축으로 하는 엄밀한 생산계

획시스템이 배경에 있고, 소매점으로부터의 JITS의 경우는 컴퓨터에 의하여 POS 시스템이나 EOS 시스템 등 스토어·매니지먼트·시스템이 배경에 있는 것이다. 즉, JITS는 소량화,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의 매니지먼트·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광역유통센터」를 들고 싶다. 이것은 이 소량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측이 그 소량화에 통합화한다는 형태로 대처하고자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온라인·컴퓨터·네트워크와 하물취급을 기계화하여 통합납품체제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량화에 대한 통합화라는 방향이 몇가지의 차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현재 물류의 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 3. 장래의 현안

분명히 이들의 키워드가 나타내는 방향에서 물류의 흐름은 움직여 간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다고만 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 그 하나는 규제완화이다. 이는 운수만이 아니라 유통 전체에 관계되는 문제이며, 거기에서 산업구조라든가 경쟁구조의 변화가 생겨 그것이 물류를 크게 변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보다 큰 것이 사람의 문제일 것이다. 이미 2백만명에 달하려는 18세 인구는 1992년경에 절정을 이루게 되고, 이때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20세기 말에는 절정인 때의 3분의2까지 떨어져서 그 상태로 유지, 계속될 것이다. 완전히 노동력부족이 오게 된 것이다. 특히 노동집약도가 높은 물류에 있어서는 이대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상태

이다.

여기에서 「인프라의 재정비」 「운수구조의 고도화」 「모달·시프트(수송기관의 변경)」 「시간단축을 비롯하여 노동조건 개선과 그에 의하여 일어나는 비용증진에 대응」등과 같은 방향이 일어날 것임

에 틀림없다. 아마도 물류는 이러한 것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좋은 싫든 간에 크게 변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中田信哉 神奎 대학교수)

(Post 21.89.11)